

경쟁체제로 돌입

삼성항공 · 한벨,
헬기생산 참여로

삼성항공이 프랑스의 유로콥터社로부터의 헬리콥터 생산기술 도입을 통해 헬기 완제품조립에 나서게 됐다.

한벨헬리콥터社도 완제 헬기 조립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등 그동안 대한항공(군수용)과 현대기술개발(민수용)로 2원화 돼 있던 헬기사업도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12월 20일 삼성항공이 제출한 중형헬기 제조기술 도입신고서 및 한벨헬리콥터社의 완제품 조립생산을 위한 사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했다.

삼성항공의 기술도입신고서에 따르면 14인승 도편모델에 대해 60만달러의 기술도입료를 지급, 올해부터 99년까지 5년간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삼성항공은 그동안 UH-60기종의 엔진조립생산을 비롯, 일부 기체부품을 생산해 왔으며 한벨헬리콥터社도 지금까지 헬리콥터 정비 수리 개조 및 일부 부품생산 등에 그쳤으나 이번 기술도입 신고를 통해 각각 완제품 조립생산에 나서게 됐다.

전자장비 개발 추진

삼성항공, 美하니웰사와
공동개발 계약

삼성항공이 항공전자장비 전문업체인 미국의 하니웰社와 공동으로 항공기 핵심전자장비 가운데 하나인 공기자료컴퓨터(MADC : Micro Air Data Computer) 소프트웨어를 개발키로 계약을 맺었다.

공기자료컴퓨터는 항공기 운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 속도, 온도 등을 제어하는 장비로 삼성항공은 기존의 공기자료컴퓨터 크기보다 4분의 1정도 줄이는 제품을 하니웰과 공동 개발, 군용기 및 민항기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훈련기사업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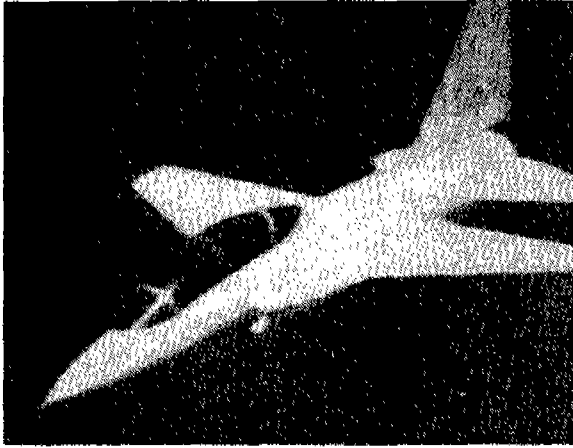
삼성, KTX-2
「록히드」와 설계착수
대우, KTX-1,
95년 3·4호기 제작

三星航空이 고등훈련기의 본격 개발을 위해 시장조사, 기본 설계 등 탐색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大宇重工業도 95년 3월까지 기본훈련기 3호기를 제작키로 하는 등 KTX(훈련기)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의 훈련기 도입계획이 최근 외국훈련기의 직구매에서 국내 제작,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KTX-2(고등훈련기)사업 주도업체인 三星航空, KTX-1(초등훈련기)사업 주도업체인 大宇重工業 등이 각각 훈련기 개발과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총 3백50억원을 투입, 개발 예정인 삼성항공의 고등훈련기는 훈련기 및 경공격기용으로 사용되는 초음속 항공기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三星航空과 록히드社가 공동 개발해 한국공군 및 세계 훈련기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大宇重工業도 정부의 기본훈련기 구입방침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성능 일부를 개선한 초등훈련기 제3호기의 제작을 완료키로 하는 등 기본훈련기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大宇重工業은 그동안 기본훈련기 1, 2호기를 제작해 慶南 泗川비행장에서 약 2백여회의 시험비행을 끝냈으며 내년까지 3, 4호기의 제작을 완료, 시험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三星航空이 오는 2000년까지 개발 예정인 고등훈련기(KTX-2) 모형



大宇重工業이 제작, 시험비행을 끝낸 초등훈련기(KTX-1)

LG정밀, 사명개정 후 경영혁신활동 본격화

VIP2000 프로그램 전개, 세계일류 지향

LG정밀(대표 孫基洛)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사명 金星정밀을 새롭게 바꾸고, '활기찬 정밀, 하나된 정밀, 최고의 정밀'을 만들기 위한 <VIP2000>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 제2의 경영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정밀은 LG그룹의 명칭과 심볼마크 등 CI(Corporate Identity)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등 무한 경쟁시대에 보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미래지향적 기업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상품의 특성 및 고객인지를 고려하여 회사명칭을 "LG정밀"로 개정했다.

또한 비전달성을 위한 전제조

건인 실체변혁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략혁신/조직혁신/사고·행동혁신의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자부심(Pride)과 활력(Vitality)에 넘치는 일체화된 조직(Identity)"을 만들기 위해 <VIP2000>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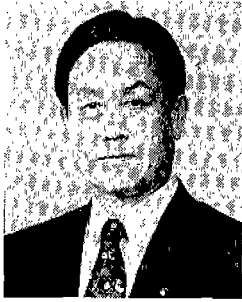
VIP는 Pride(자부심), Vitality(활력), Identity(일체화된 조직)의 머릿글자로, '활기' 차고 '하나' 되며, '최고'인 회사를 만들자는 혁신활동의 하나다.

<VIP2000> 프로그램은 작년 한 해동안 비전체험 프로젝트를 통해 이룩한 '나의 변화'를 '팀·조직의 변화'로 연결시키고, 조직스킬, 고객만족, 사원만족, 리더십, CARE제도정비, 공장 및 연구소 혁신활동 등 여러 혁신활동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영이념/행동규범 실천 프로그램을 비롯, CIP 구체화 작업, '감사하는 마음' 캠페인, 회사비전 수정, 가족교육 프로그램, 사업 업무 품질 사람 등 조직 전반에 걸친 질(質)의 혁신



새로바뀐 회사 로고



손기락 사장

등 일련의 혁신활동이 연중 지속 전개된다.

LG정밀은 새로운 이름과 함께 VIP2000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업차관 도입 추진

항공·전자업체
설비투자 활용

금년부터 첨단산업관련기업체에 1단계로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전자·항공 등 분야의 업체들이 설비투자를 위해 상업차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보다 투자를 평균 50%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전자업체들과 중형 항공기 개발등을 추진중인 항공 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 및 장비 도입 등에 低利의 상업차관을 활용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상업차관이 기존

의 해외증권 발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 자금 조달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도체·液晶 표시소자(LCD) 등 첨단제품의 생산장비 도입 및 멀티미디어 개발에 이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現代電子도 내년중 반도체 생산라인의 대규모 新·增設에 따라 1조8천억원의 투자분중 반도체 장비도입 자금을 상업차관을 사용할 방침이며, 삼성항공을 비롯한 항공업체들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자금으로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MD-90기 합작생산

美·中, 3월에
첫출고 예정

미국의 맥도널 더글러스社(MDC)와 중국의 상해항공산업공사(SAIC)는 MD-90여객기의 합작생산을 곧 시작하여 올 3월 초에 첫 출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DC와 SAIC는 워싱턴DC서 MD-90기 20대를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12억달러 규모인 이 계약에 따라 SAIC는 西安에서 동체 앞부분과 기타 小조립부품이, 成都에서는 機首부분 및 객실입구와 업무 출입구가, 그리고 瀋陽에서

는 모든 전선, 동력장치 및 機尾 조립품들이 생산된 것을 上海에서 조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SAIC는 동체의 중간 및 후미 부분과 수평尾翼도 생산하며 시험비행을 거쳐 최종 인도하게 된다.

소형민항기 합작 생산

미국·대만
SJ-30제트기 생산 합의

미국과 대만은 소형 민용항공기를 미국에서 합작생산키로 합의했다고 대만을 방문중인 페리 리코 페나 美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지난 79년 美각료로는 두번째로 대만을 방문한 페나 장관은 미국과 대만이 합작해 기동성이 뛰어난 5~7인승의 SJ-30 제트기를 西버지니아주에서 생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만의 6개 대기업이 '華陽航太投資公司'를 설립해 美스웨어링언 항공社와 합작한다고 페나 장관은 밝혔다.

이 사업은 그의 방문중 첫 결실을 거둔 양국간 항공우주분야의 구체적 합작투자이다.

항공기용 볼트 신개발

영국 항공엔지니어, 정삼각형 볼트머리 개발

존 갈브레이스는 영국의 한 항공엔지니어는 최근 기존 볼트의 트러블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볼트머리를 개발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트머리의 홈은 십자, 일자, 육각 등 크게 세가지 형태인데 갈브레이스씨가 이번에 개발한 볼트머리 홈은 이와는 달리 정삼각형 모양이다. 그에 따르면 이 정삼각형 홈은 드라이버로 볼트를 조일때 삼면에 힘이 균일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볼트머리의 파손이 다른 볼트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다.

갈브레이스씨의 의뢰에 따라 볼트머리의 내구성 실험을 행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징스 펜 박사(기계공학)는 “정삼각형 머리볼트가 십자머리 볼트에 비해 토크(돌리는 힘)기준으로 4배가량 강한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삼각형 머리 볼트는 일자머리 볼트와 육각볼트에 비해서는 20%가량 높은 내구성을 보였다.

영국의 항공회사들은 갈브레이스씨의 제안으로 삼각머리 볼

트에 대한 정식실험을 실시, 이 볼트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현장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세계 볼트시장에는 또다른 바람이 예상된다.

항공기 조립공장 건설

70인승 소형 N-250

생산희망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에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N-250 터보 프로프 항공기 조립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영 안타라통신이 보도했다.

안타라통신은 주수프 하비비에 기술개발장관의 말을 인용, 인도네시아가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춰, 70인승의 소형항공기 N-250 생산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공장은 국영 항공기제작사인 IPTN사가 건설한 것과 비슷

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IPTN의 회장도 겸하고 있는 하비비에 장관은 미국의 오리건,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등 4곳의 후보지 중 한 곳에 공장을 건설, 합작 투자 생산을 통해 쌍발 항공기의 생산 및 판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7년 말부터 첫 생산·판매에 들어갈 이 항공기의 제작 단가는 1,35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경영합상에 합작

가루다와 KLM간에

인도네시아 국적 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네덜란드의 KLM항공과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

가루다 항공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가루다 항공이 경영능력



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15일 암스테르담에서 KLM측과의 합작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합작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액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94년 11월 초 인도네시아 재무 장관은 가루다社에 대해 기업공개를 앞두고 재정상황과 경영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국 투자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영국 롤스로이스사 미국 엘리슨사 매수

롤스로이스사는 엘리슨엔진사를 5억2500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신청했다. 엘리슨사는 1992년 12월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총 3억6700만달러에 그 경영권과 투자회사 Clayton, Dubilier, Rice를 인수했다.

이로서 영국은 미국현지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터보프롭, 소형 터보팬 및 터보샤프트엔진에서 뒤떨어진 미국과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거래는 지난 94년 11월 20일 런던에서 합의되었는데 지난 94년 여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와 9월에는 많은 진척을 보였다. 롤스로이스는 이번 거래를

1995년 2/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 엘리슨사는 롤스로이스에 합병되어 UK사의 Aerospace Group의 일원이 된 후에도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엘리슨사는 종업원 4,3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6억5천만달러에 이른다. 한편 UK사는 종업원 42,000명에 연간 매출액 23억달러(항공우주비중 60%)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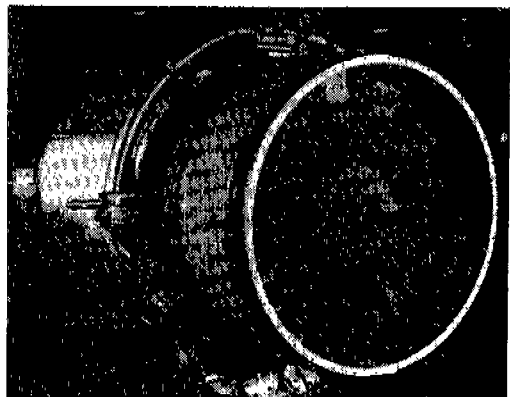
엘리슨사는 미 해군의 V-22 Osprey에 탑재되는 T406엔진과 CC-130J용 AE2100엔진 등으로 군사용 부문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경량 헬리콥터 부문에서는 인디애나주의 공장에 250패밀리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미 육군의 RAH-66 코만치 헬리콥터용 T800 터보샤프트 엔진을 얼라이드 시그널사와 공동 생산하고 있다.

민수분야에서는 고속 지역형



롤스로이스가 엘리슨엔진을 5억 2500만 달러에 매수하는 거래에 서명한 CDR의 Donald Gogle 이사와 롤스로이스사 Sir Ralph Robins (우측)

항공기 및 대형 비즈니스제트 시장에서 터보팬엔진과 터보프롭엔진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AE2100 터보프롭엔진은 Saab 2000과 IPTN의 N250에 장착되었으며, AE3007 터보팬엔진은 Embraer사의 EMB-145 지역형항공기에 장착될 예정이다.



엘리슨사가 제작한 7000파운드급 AE3007 터보팬엔진 추력 증강형은 12,000파운드 추력까지 낼 수 있다.